



6면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오늘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도, 집합금지 등 매출감소 겪는 소상공인 대상 신청접수
집합금지 300·영업제한 200만·일반업종은 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하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 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을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오후 9시(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 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인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 '버팀목자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병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까지만 소요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



눈꽃과 어우러진 정음 '무성서원'

일대는 우아한 건축미와 함께 눈꽃에 덮인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태를 자아낸다.

정음 전역에 눈꽃 향연이 펼쳐진 가운데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이 순백의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루 종일 함박눈이 내린 무성서원 일대는 우아한 건축미와 함께 눈꽃에 덮인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태를 자아낸다. /정음=김대환 기자

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2020년 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정도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 신고하는 소

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자, 모두 검사 받아야”

전북도, 코로나19 검사 즉시 시행 행정명령
처분기간은 15일까지 위반시 구상권 청구도

전북도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 즉시 시행' 행정명령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상북도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모든 관계자(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처분대상은 경상북도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모든 관계자(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 가운데 전북도에 주

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처분내용은 지난 해 11월 1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방문자 등)는 지체없이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처분기간은 8일 0시부터 15일 오후 6시 까이다.

처분사유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

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에 의거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852번(전주)과 879번(익산)의 경우 중앙에서 열방센터 방문자로 통보된 명단과 일치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902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중 열방센터 방문이 나타났으며, 자진진술은 없었고, 확진자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를 현장 조사하던 중 질문을 통해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방문일시는 잠복기를 넘어서지

만, 타지역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사례로 비춰볼 때 지속적 소모임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커 이후 동선을 집중 확인할 계획에 있다.

중앙에서 통보된 전북지역 열방센터 관련 명단은 총 52명(2명 양성, 30명 음성, 검사결과 미확인 18명)으로 파악됐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정상개최 예고

영화는 계속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관객으로 개최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는 정상 개최를 예고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연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영화제 기간을 한 달 연기하고, 심사 상영부터 풀린 전주까지 무려 114일간의 최장기 개최 일정을 시도한 바 있다.

4월 29일부터 열흘간

팬데믹 시대 맞아

새로운 슬로건 확정

조직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단계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치러진 첫 번째 국제영화제라는 21회의 경험을 받은 삼아 22회에서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른 세분된 진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행사 및 영화 상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위는 또 22회를 맞아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영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인 '영화는 계속된다'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조직위는 "이 슬로건은 지난해 힘든 한 해를 넘긴 영화인과 관객, 우리 모두에게 울해도 영화와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벽에 내몰린 영화산업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아가는 결의를 담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2021

근하신년

辛丑年

풍요와 부의 상징 신축년 새해
새만금 1번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새롭게 비상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